

# 한농연중양연합회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 지침

1. 두산그룹 제품 주요 브랜드별 불매운동 전개
2.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 현수막 부착
  - 각 읍면회 당 1개 이상씩
  - 4월 24일 (수) 전국동시에 현수막 부착
3.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 전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및 성명서 발표
4. 각 언론사 투고 혹은 기고 형식으로 불매운동 집중 게재
  - WTO·FTA 협상에서 농업보호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농업개방세력 및 재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냄
5. 농협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판매장 및 시·군연합회 관내 회원조합의 판매장에서 두산그룹 제품 판매 금지 협조 요청
6. 이장협의회, 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연대
7. 두산그룹 및 계열사 홈페이지, 지역 내 주요 시민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 및 동참 권유 글 올리기
8. 도시지역 친·인척에 두산제품 불매운동 동참 권유

## ■ 한농연중양연합회 전국적인 두산그룹 불매운동 벌이기로 결의

최근 경제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농업이 한국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망언을 유포시킴으로써,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중공업 회장)은 “농업개방 불가피론”의 선두에 서서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 한농연중양연합회는 산하 도·시·군연합회를 총동원하여 전국적인 두산그룹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농연은 지난 4월 16일 긴급도회장단 회의를 열고 농업개방세력의 농업포기 망언에 대해 좌시할 수 없으며,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하여 현수막 걸기, 지역공장 항의방문, 농협지역본부 및 농협에서 관할하는 모든 판매장 내 두산그룹 제품 판매 금지 협조요청 등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였다.

## 블매운동 대상 두산그룹 제품

- 주 류 : 山소주, 그린소주, 군주, 설종매, 청하, 국향, 수복, 설화, 마주앙, OB맥주(OB라거, OB라이트, 카스, 카프리, 버드와이저)
- 의 류 : Polo, GUESS, DKNY, DISNEY
- 외 식 : KFC, 버거킹, Cafe NEscape, doota Vista
- 식 품 : 종가집 김치
- 사 료 : 백두사료
- 출 판 : 동아전과, 두산세계대백과 사전을 비롯하여 동아출판사 서적
- 잡 지 : VOGUE Korea, GQ Korea, Reader digest
- 레 저 : 두산리조트 춘천컨트리클럽, 춘천 콘도미니엄, 두산연수원
- 자동차 : 불보자동차
- 가전제품 : Whirlpool, DZ
- 카 드 : 도서상품권, 다사랑 카드, 다사랑 도서생활권
- 기 타 : 오리콤, DYR(광고대행업체), 윌리스(e-Business Software 및 컨설팅), 두산타워

## 두산계열사 주요 홈페이지

- 두산중공업 : [www.doosanhesvy.com](http://www.doosanhesvy.com)
- 두산건설 : [www.dsland.co.kr](http://www.dsland.co.kr)
- 두산기업 : [www.doosanresort.co.kr](http://www.doosanresort.co.kr)
- 두산베어스 : [www.doosanbears.com](http://www.doosanbears.com)
- 두산타워 : [www.doota.com](http://www.doota.com)
- 한국도서보급 : [www.booknlife.com](http://www.booknlife.com)
- 동아출판사 : [www.dong-a.com](http://www.dong-a.com)

**※ 일사불란한 두산그룹 제품 블매운동으로 한농연의 힘을 보여줍니다!!!**

### ■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두산중공업 회장) “농업포기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용성 회장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통 산업인 이른바 “굴뚝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굴뚝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첨단 열풍에 휩싸여 {들쥐떼}처럼 우르르 몰려가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어 문제가 크다.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켜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성씨의 말처럼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라 한다면, **1차 산업인 농업은 국가 경제와 사회를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토대임은 명백하다.** 농업은 한 나라의 식량안보의 확보와 사회 안정,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과 농업생산주체가 되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전통적인 농업 강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과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해 왔다. 그들의 막강한 농업 경쟁력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에 기반한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해방 이후 공업화를 위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 왔다. 지속적인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정책, 허울뿐인 농가소득보장정책과 복지제도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강요받아 왔다. 그 속에서도 우리 농업은 값싸고 질 좋은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과 토지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유지와 환경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농민적 발언 목록

- 농민은 전 국민의 8.6%뿐이지만 정서적으로는 86%이다. 수출을 해야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농민을 생각해 FTA 체결을 미룰 수 있겠는가?

(매일경제신문, 2002년 3월 20일자 “박용성 회장, ‘농업문제 FTA 발목 잡아선 안돼’” 기사 중에서)

- 경쟁력없는 농업을 배려하다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한국은 5~10년 내에 3등국가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농업부문을 과감히 포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칠레 FTA 협상이 지난 99년 12월 시작됐으나 포도,배,사과 등 일부 과실농가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협상이 발목잡혀 있다. 정부가 과실농가의 압력 때문에 칠레와의 FTA 협상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칠레와 일본과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미주 무역 전진기지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하루바삐 추진해 무역장벽을 없애나가야 한다.

(문화일보, 2002년 3월 20일자 “경제단체 ‘FTA 지연 3등국가 추락’” 기사 중에서)

- 우리 경제를 망친 것이 중소기업 보호정책이다.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농업을 국민 감정으로만 보호하고 있다. {보릿고개 멘탈리티}로 농업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

보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노고는 인정하지 않고 농업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박용성씨의 발언은, 우리 농업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훼손을 부채질하는 근거없는 망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는 농업계가 집단이기주의적 관점에서 WTO 무역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농연을 비롯한 각 농민단체들은 이미 1999

년 협상 초기부터 한·칠레 FTA 체결시 농업 부문이 포함될 경우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며, 이는 칠레나 남미 지역에 대한 공산품 수출 증대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농민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한·칠레 FTA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외교통상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FTA로 인해 농업 부문과 국가 경제의 상당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경북대 김충실 교수의 전망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농연은 칠레나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의 FTA 경험을 참고하여 농업 부문의 협상 제외나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 논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농연은 결코 집단이기주의적인 의도로 WTO

도 쩌태일 멘탈리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뉴라운드를 맞으면 농민은 더 피해해질 수 있다.

(한국일보, 2002년 4월 9일자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 인터뷰 기사 중에서)

○ 오는 2004년 뉴라운드 발족을 앞두고 농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중략)... 앞으로 10년은 물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한 포기도 불가피하다.

(서울경제신문, 2002년 3월 20일자, “농업개발 공론화 하자” 기사 중에서)

○ 수출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에서 통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농민들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앞으로는 농업 문제도 협상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칠레와의 FTA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나 기업이 보상하는 방안 등 농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 협상을 조속히 타결지어야 한다. 농지전매 제한 규정도 속히 철폐돼야 한다. 전원주택이나 골프장을 계속해서 산을 깎아가며 지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때가 됐다.

(경향신문, 2002년 3월 19일자, “10년내 일본 따라잡아야 산다” 중에서)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농민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초래하고 민족 생존권 수호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와 농업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

한 국제 협상에 있어서는, 정부의 투명한 내용 공개와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 온 것이다.

## ■ 재벌이익만을 대변하는 반농민적 언론 및 인사들

정부내 경제·외교부처와 재벌세력, 이들과 이해를 함께하는 보수언론과 비양심적 경제학자들은, 이번 박용성씨 망언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의 정당한 주장과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가로막고서 여론몰이를 통해 농업계가 국가 이익에 반하는 이기적 집단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오도하며, 각종 무역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켜 국익을 훼손시키고 우리 농업과 농민생존권을 말살하는 원흉이다.

일례로 이상호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4월 2일자 {메아리}에 기고한 "농업개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을 살펴보자.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기울여 온 전국민적인 토론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은 오간데 없고, 박용성씨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 양 옹호하고 있다.



...(중략)세계 13번째 무역국인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최근 가입한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략)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우리가 너무 태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략) 박 회장의 말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농민 비중은 8.9%에 불과하나 정서상으로는 89% 이상이다. 박 회장의 주장은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장으로서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농민 단체들의 반발도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조율을 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느냐에 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러한 농업관련 협상에 대한 사실 왜곡과 반농업적 여론 유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조선일보는 작년 3월 18일자 신문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산위기”라는 사실을 게재하여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협상 초기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2001년 3월 당시 칠레에서의 제5차 회의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갑자기 FTA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마저 조작한 거대 언론의 기만적 행태는,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농민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포도 등 칠레산 농산물이 밀려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주장한다. (중략) 우리나라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공산품 수출은 증가하겠지만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임은 협상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 관련 단체들은 협상 초기에 그런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어야 했고, 정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력을 했어야 했다.

(중략) 세계의 통상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기초로 한 다자체제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 및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보다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실험인데, 정부가 준비를 소홀히 해서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한농연은 창립 이래 1988년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씨의 농산물시장개방 발언 사건, 1997년의 “강경식 망언” 사건과 KDI 보고서 파문, 1999년 3월 중앙일보의 “농업투자 무용론” 기사 사건 등 반농업세력의 농업말살 음모가 있을 때마다, 12만 회원의 하나된 힘으로 민족의 식량을 책임지는 우리 농업의 보호를 위해 이 땅 400만 농민과 함께 싸워왔다. 이번 4월 9일의 강원도연합회의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반농업세력에 대한 정당한 투쟁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어 400만 농민과 7천만 국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한농연**

**※ 일사불란한 두산그룹 제품 불매운동으로 한농연의 힘을 보여주세요!!!**